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미국 경제]
- NYT: 전쟁으로 미국인 생활비 부담에도 백악관은 무반응

[미국 금융]
- CNBC: 동 긴장 완화에 미 국채 금리 하락세
- Bloomberg: 호르무즈 개방에 주식 급등하고 달러와 오일 하락

[중동 위기]
- CNBC: 이란, “호르무즈 해협 상선에 현재 완전 개방”
- Bloombereg: 트럼프 “이란과의 전쟁은 곧 끝날 것”

[오일]
- Bloomberg: 휘발유 가격, 미 지역마다 여파 다르다

[AI(인공 지능)]
- TheEconomist: 테크 업계 일자리 감소, AI 때문만은 아니다
- CNBC: 미 테크 기업들, 이란 전쟁 불확실성 속에 정부 로비 강화
- CNBC: 식료품 업계, 신선식품 등 AI 활용한다

[오늘의 금융 지표]
- 미 증시 지수와 주요 환율

---

## [미국 경제]

**NYT: White House Shrugs Off Shaky Economy as War Exceeds Trump’s Timeline**
**전쟁으로 미국인 생활비 부담에도 백악관은 무반응**

- 백악관은 경제 불안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란 전쟁이 트럼프의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미국인들의 생활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
- 전쟁 7주째에 접어든 가운데, 투자자들은 높은 유가에도 별다른 동요를 보이지 않고 있고 S&P 500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이런 월가의 낙관론과 달리, 일반 미국인 가계는 높은 휘발유 가격으로 재정 부담을 받고 있다.
- 유가 상승은 물가 상승, 실업 증가, 경기 둔화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당초 단기전을 예상했던 것과 달리 전쟁은 교착 상태에 빠졌고, 휴전도 불안정한 상황이다.
- 그 영향으로 이미 경제적 부담이 나타나고 있다. 미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갤런당 약 4.10달러로, 전쟁 이전보다 1달러 이상 올랐다.

기사

## [미국 금융]

**CNBC: U.S. Treasury yields slide as traders welcome Middle East de-escalation**
**중동 긴장 완화에 미 국채 금리 하락세**

-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10일간 휴전하고, 이란 측이 호르무즈를 개방하겠다고 언급하면서 오늘 금요일 미 국채 금리는 떨어졌다. 지정학적인 위기 완화로 국채 시장에 훈풍이 불고 있는 것.
- 미 정부 차입의 핵심 기준이 되는 1년물 국채 금리는 거의 8 베이시스 포인트나 낮은 4.23%에서 거래되고 있다. 그리고 연준의 단기 금리 정책에 민감한 2년물 국채 금리도 거의 8베이시스 포인트 떨어진 3.702%에서 거래되고 있다.
- 장기 30년 국채 금리의 경우도 6 베이시스 포인트 낮아진 4.863%를 보인다. 1 베이시스 포인트는 0.01%를 나타내며 국채 가격과 국채 금리는 반비례한다.

| SYMBOL | COMPANY | YIELD | CHANGE |
|---|---|---|---|
| US10Y | U.S. 10 Year Treasury | 4.236% | -0.073 |
| US1M | U.S. 1 Month Treasury | 3.66% | -0.002 |
| US1Y | U.S. 1 Year Treasury | 3.637% | -0.051 |
| US2Y | U.S. 2 Year Treasury | 3.70% | -0.078 |
| US30Y | U.S. 30 Year Treasury | 4.877% | -0.053 |
| US3M | U.S. 3 Month Treasury | 3.69% | -0.009 |
| US6M | U.S. 6 Month Treasury | 3.674% | -0.022 |

기사

**Bloomberg: Stocks Rally While Oil, Dollar Drop on Hormuz Hope**
**호르무즈 개방에 주식 급등하고 달러와 오일 하락**

-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상업 선박에 "완전 개방"한다고 발표하자 증시는 오르고 유가와 달러는 하락했다. 전쟁 위기가 완화되면서 투자자들이 다시 위험 자산 매수에 나섰다.
- S&P500 지수는 1% 이상 상승하며 역대 최고치를 연달아 경신했다. 나스닥도 1.5% 이상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과 이란이 에너지 시장을 흔들던 갈등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에 시장은 반등한 것이다. 여기에 AI 낙관론과 기업들의 실적 호조가 상승세에 힘을 보탰다. 브렌트유는 90달러 아래로 떨어졌다.
-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10일간 휴전이 유지되고 있는 점도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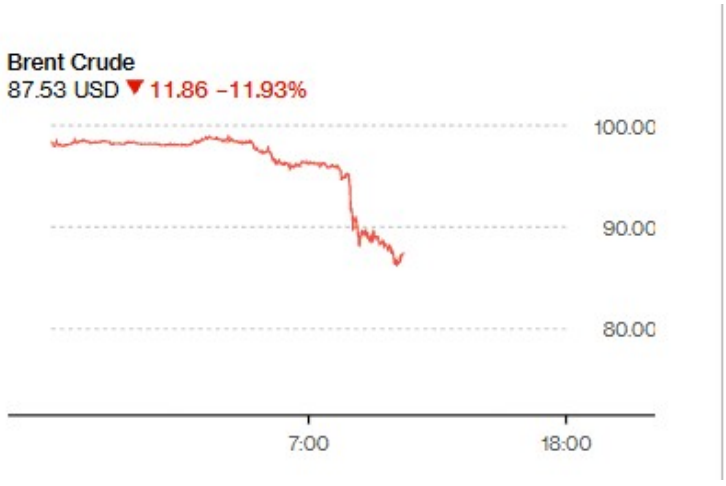



기사

**[중동 위기]**

**Bloomberg: Iran Says Hormuz Strait Now Completely Open for Commercial Ships**
**이란, "호르무즈 해협 상선에 현재 완전 개방"**

- 이란을 호르무즈 해협이 상선을 위해 완전히 개방됐다고 공식 발표해 미국과 이스라엘 간 전쟁 종식의 주요한 걸음을 내디뎠다.
- 트럼프는 이 조치를 환영하며, 호르무즈 해협이 "완전히 개방돼 전면 통항이 가능하다"라고 그의 SNS에서 밝혔다.
- 이란 외무장관 Abbas Araghchi가 모든 상선의 통과를 전면 허용한다고 발표하자, 브렌트유는 배럴당 약 88달러로 11% 이상 급락했다.




기사

**CNBC: Trump says war in Iran is going 'swimmingly' and 'should be ending pretty soon'**
**트럼프 "이란과의 전쟁은 곧 끝날 것"**

- 트럼프는 라스베이거스 방문 기간에 이란과의 전쟁이 막바지에 접어들었다고 밝혔다.

- 트럼프는 “전쟁 상황이 매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조만간 끝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세계 어디에도 뒤지지 않는 가장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 대통령의 이번 라스베이거스 정은 많은 근로자들의 팁 소득에 대한 연방 소득세를 면제하는 ‘no tax on tips’ 정책을 홍보하기 위한 것이었다.

기사

**[오일]**

**Bloomberg: Surging Gas Prices Have Hit These US Cities the Hardest**
**휘발유 가격, 미 지역마다 여파 다르다**

- 이란 전쟁 여파로 미국 전역의 기름값이 폭등하면서 도시마다 경제적 타격이 엇갈리고 있다.
- 내슈빌, 인디애나폴리스 같은 선벨트와 남부 지역 도시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 이 지역 운전자들은 3월 1일 이후 한 달 평균 기름값으로 70달러 가까운 돈을 더 지출해야 했다.
- 반면 뉴욕, 샌프란시스코, 포틀랜드처럼 인구 밀도가 높은 도시들은 상대적으로 지출 증가 폭이 작았다. 자기 차량 운전보다 대중교통 이용 비중이 높았기 때문이다.

기사

**[AI 인공 지능]**

**TheEconomist: The tech jobs bust is real. Don’t blame AI (yet)**
**테크 업계 일자리 감소, AI 때문만은 아니다**

[테크 회사 고용 현황]
- 미국에서 테크 일자리의 고용 비율은 2022년 후반 2.5%에서 2025년 2.3%로 줄었다. 또한, 과거와 비교하면, 50만개 이상의 테크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
- 2000년대 미국, 호주, 영국, 캐나다, 프랑스, 일본과 노르웨이 국가들의 테크 업계 고용 비교 데이터에 따르면,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그래밍 그리고 클라우드 컴퓨팅을 포함하는 많은 회사가 고용 상승세를 타던 중, 2022년 후반 Chat GPT의 활용 후, 하락세를 보였다.
- - 그러나 AI의 도입이 반드시 테크 회사의 채용 감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American Census Bureau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 지역에 약 25%의 회사만이 AI를 날마다 사용하고 있고 미국 전체에서는 AI 채택률이 더 적게 나타났다.

[테크 회사 고용의 역사]
- 세계 경제가 기술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기술 분야의 고용 비중이 늘어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되지만, 2000년 대 미국, 호주, 영국, 그리고 캐나다에서는 그 비중이 거의 변하지 않았다. 그리고 2006-2007년 부유한 회사들이 금융권에서 활황을 보일 때조차도 테크 분야의 고용은 잠잠했다.
- 또한, 2000년 닷컴 버블 이후, 회사들이 돈을 아끼기 위해 외국의 IT컨설턴드에 업무를 위탁하기 시작했다.
- 코로나19 시기에는 모든 것이 디지털화되면서 많은 테크 기업들이 고용을 확대했지만, 이후 비용 절감을 위해 다시 해외 아웃소싱으로 전환했다.

- - 테크 기업은 기술 인재 채용을 줄이고 있지만, 다른 산업들은 기술 인재를 찾고 있다. 이제는 젊은 개발자들이 바리스타가 아니라 테크 직무를 위해 스타벅스에 지원하는 시대다

기사

**CNBC: U.S. tech companies ramp up government lobbying amid Iran war uncertainty**
**미 테크 기업들, 이란 전쟁 불확실성 속에 정부 로비 강화**

- 미국 테크 기업들이 정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로비 활동을 대폭 늘리고 있다고 업계 관계자들이 전했다.
- 현재 테크 분야의 중동 내 자산(데이터 센터 등 기업들이 깔아 놓은 인프라)들이 군사적 공격 대상이 되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AI 인프라 구축에 필수적인 주요 원자재의 공급 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즉, 전쟁 여파로 중동에 있는 데이터 센터나 설비들이 공격받을 위험이 커졌고, AI를 만드는 데 필요한 재료를 구하기 힘들어졌기 때문입니다.
- 이와 관련해 백악관 대변인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업계 리더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사

**CNBC: Some grocers are using AI to cut food waste and boost profit margins**
**식료품 업계, 신선식품 등 AI 활용한다**

- 치솟는 물가에 지친 소비자들이 싼 곳을 찾아 여러 매장을 옮겨 다니면서, 기존의 마트들이 큰 위기를 맞고 있다. 단순히 가격을 올리거나 무차별적인 할인을 하는 방식으로는 코스트코 같은 대형 창고형 매장이나 저가형 매장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 이에 따라 많은 업체가 AI를 활용한 정밀한 가격 전략을 선택하고 있다.
- 특히 유통기한이 임박한 신선식품의 가격을 AI로 실시간 조정하여, 매년 버려지는 약 182억 달러 규모의 손실을 줄이고 수익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확산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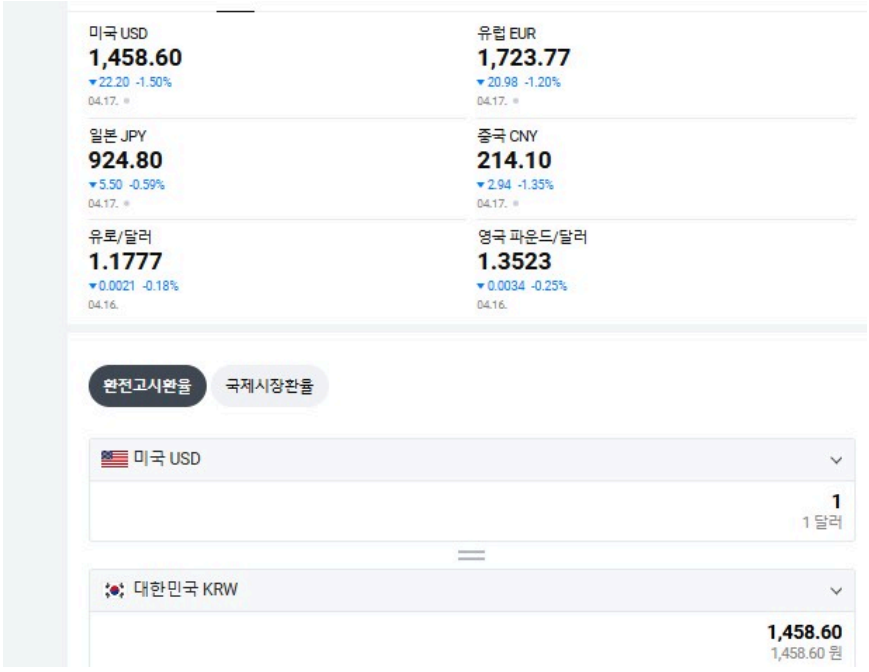
기사

**[오늘의 금융 지표: 미 증시 지수와 주요 환율]**

---




| | | | |
|---|---|---|---|
| US 30 | 49,554.40 | +975.8 | +2.01% |
| US 500 | 7,128.80 | +87.7 | +1.25% |
| Dow Jones | 49,526.04 | +947.32 | +1.95% |
| S&P 500 | 7,128.69 | +87.41 | +1.24% |
| Nasdaq | 24,480.96 | +378.25 | +1.57% |
| S&P 500 VIX | 16.98 | -0.96 | -5.35% |
| Dollar Index | 97.697 | -0.328 | -0.33% |




KOCHAM | 445 Park Ave | New York, NY 10022 US

Unsubscribe | Constant Contact Data Notice